

# 타이어 공기압 높이고 빙판길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 돌려야

## 혹한기 내 차 관리 어떻게

북극발(發) 한파가 전국을 뒤덮으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요즘 자동차 관리와 도로 주행시에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특히 사람만큼이나 자동차 역시 추위에 약해, 평소 애 없던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이나 배터리 방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연이어 내린 눈으로 풍 썰 얼어붙은 도로는 빙판을 방불케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민단체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에서는 가급적 실내-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차 고장을 방지해야 한다.

차가 달릴 때는 엔진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새워 주차할 때는 연료 필터나 연료통에 생긴 수분이 얼어붙게 된다. 이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다 보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도 혹한에선 전력 소모가 많아져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겨울철에는 차량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구에서 먼 안쪽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실외에 세울 때는 벽 쪽이나 동쪽을 향해 주차해 최소한의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한파에는 온도에 민감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도 잦다. 이를 예방하려면 겨울에 장기간 차를 세워 둘 때도 2~3일에 한 번은 차 시동을 걸어 두

시동 꺼짐·배터리 방전 주의  
영하 10도 이하 땀 지하 주차  
실외 주차는 벽 쪽·동쪽 방향  
장기 주차엔 2~3일마다 시동  
타이어 공기압·마모도 확인  
블랙박스 '저전력 모드'로

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은 전원을 꺼 두거나, 전용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한편 저전력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타이어 역시 기온 급하강에 큰 영향을 받는 부품이다. 공기 부피가 수축하면서 공기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공기압을 10%가량 올려 두고, 주행 전에 반드시 공기압과 마모도를 확인해야 한다.

폭설이 예상되면 미리 스노체인을 장착하거나 스노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여의찮다면 뿌리는 스노체인이라도 사용하는 편이 좋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서리 등으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와이퍼를 겨울용으로 교체하거나, 얼어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 두는 편이 좋다. 쉽게 얼어붙지 않고, 성애와 김 서림을 방지해 주는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하는 것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광주일보 DB〉

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겨울철 도로를 달릴 때는 미끄러운 노면 상태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혹한기에는 비나 눈이 오지 않더라도 습도가 높고 그늘진 곳에는 살얼음이 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빙판길 사고 치사율은 2.1%로, 건조한 노면에서의 사고 치사율(1.4%)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반드시 평소보다 감속해야 한다. 공단 시험 결과 빙판길에서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49.9m로 마른 노면의 4.7배였다. 버스의 경우 같은 속도에서 빙판길 제동 거리는 118.7m로 마른 노면의 6.8배에 달했다. 만일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 같은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려야 한다. 당황해서 반대로 틀 경우 차가 꺾 도는 현상이 일어나 넘어질 수 있다. 브레이크

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눠서 세심하게 제동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조향 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체의 중량이 큰 화물차와 버스는 빙판길 제동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겨울철 안전운전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 전기차 선전...올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돌파 '역대 최대'

1~11월 66만2천대...전기차, 전년 대비 65.7% 증가

올해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70만대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에는 최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전기차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친환경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수출량은 66만2307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5%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월별 친환경차 수출량이 5만~6만대를 꾸준히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량 7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연간 친환경차 수출량이 70만대를 넘어 올 해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아울러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 기록도 경신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수출량은 2020년 27만1000대, 2021년 40만5000대, 2022년 55만5000대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기아의 EV6, 니로, 쏘울 등 전기차 라인업이 크게 확대된 것이 친환경차 수출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수출량이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을 처음으로 넘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높은 가격,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올해 1~11월 연료별 누적 수출량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31만6654대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하이브리드차 28만368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6만1694대, 수소전기차 274대 등의 순이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이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데 비해 전기차 수출량은 65.7%나 늘었다. 다만 국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앞선 수소 전기차는 30.8%라는 감소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 기아, 임직원과 함께 '크리스마스 EV 데이'

ESG마켓·토크 콘서트 등

기아는 임직원과 함께하는 '2023 크리스마스 EV 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2023 크리스마스 EV 데이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임직원 행사로, 기아 브랜드 체험관 'KIA 360' (서울시 강남구)에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크리스마스 ESG마켓', 'ESG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크리스마스 ESG마켓'은 ▲폐기물 자원순환 스타트업 '수퍼빈' ▲장난감 전문 자원 순환 기업 '코끼리공방' ▲페플라스틱 재활용 패션 브랜드 'LAR(엘레이일)' ▲비건 화장품 브랜드 '톤28' ▲자동차 폐기물을 가방, 지갑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브랜드 '컨티뉴' ▲폐배화복업사이클링 페

션 브랜드 '119레오'가 참여해 기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제품 전시, 판매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ESG 토크 콘서트는 방송인 선과 달수빈의 진행으로 ESG브랜드인 '수퍼빈', '톤28', 'LAR', '컨티뉴'의 CEO 4인이 패널로 참여해, 기아 임직원들과 ESG 경영 방향과 실천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회사와 임직원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지역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임직원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자동차 사고기록 항목 국제 수준으로 확대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작동 여부·제동압력값 등 67개로 '스텔스 자동차' 방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했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 현대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2관왕...엑스터 '올해의 차'

아이오닉 5 '그린카' 1위

현대차는 25일 '2024 인도 올해의 차' (Indian Car of the Year 2024) 3개 부문 가운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인도 전략형 모델 엑스터(사진)는 '올해의 차'로 선정됐으며, 아이오닉 5는 '그린카' (Green Car)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2008년 i10을 시작으로 2014년 그랜드 i10, 2015년 엘리트 i20, 2016년 크레타, 2018년 베르나, 2020년 베뉴, 2021년 i20, 올해 엑스터까지 인도 올해의 차에 총 8회 선정됐다. 이는 인도 자동차 시장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이다.

인도 올해의 차는 인도에서 자동차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18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인도 올해의 차 평가단은 매년 출시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가격, 연비, 디자인, 기술적 혁신, 안전, 주행 성능, 실



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차량을 선정한다.

올해 현대차 엑스터는 마루티 जिनि, 혼다 엘레베이트를 제치고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아이오닉 5는 BMW i7, MG 코멧을 꺾고 그린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는 올해 1~11월 인도 시장에서 55만 9000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지난 7월 출시된 엑스

터는 11월까지 3만9000대 이상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4 인도 올해의 차에서 2개 부문의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은 현대차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벤츠 사회공헌위, 소외이웃 위한 '산타데이'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 활동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Mercedes-Benz All Together)' 등 올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끝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는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성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9년 넘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단위의 소외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안전 벽화 그리기', '산타데이', 구연동화 봉사 활동 '마음의 메아리',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 '사

랑의 생일파티'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특히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산타데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KCC 오토 임직원 22명이 인천 아동복지시설인 '향진원'을 방문해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 의류를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과자집 만들기 및 마술 쇼 등 공연을 펼치며 추억을 선사했다.

오는 2024년 출범 10주년을 맞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프로그램을 한 층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